

2015 인생나눔교실 지역주관처 선정 심의평

“2015년도 인생나눔교실” 지역주관처 선정심의회는, 우선 공모에 응모한 총 17개 단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2015.4.17)를 진행하여 12개 단체를 1차 선발한데 이어,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인터뷰 심사(2015.4.22)를 병행, 종합 심의하면서 진행하였다.

1차 서류심사는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개별 채점을 합산하여 다득점순으로 2차 심의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제2차 심의는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인터뷰의 경우 신청단체의 지원신청사업계획 설명, 심사위원의 질의 응답, 신청단체의 마감 발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심의기준은 ① 사업 이해도 및 참여도(30%), ② 사업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40%), ③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30%)이었다.

5개 권역별로 심사위원 4명의 채점 결과를 합산한 결과, 수도권 경기문화재단, 강원권 강원문화재단, 충청권 충북문화재단, 영남권 대구문화재단, 호남·제주권 광주문화재단이 권역 내에서 최고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나타나 채점 결과대로 지역주관처를 확정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을 비롯하여 민간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신청하였다. 특히 이번 공모 심의과정에서 기초문화재단의 사업수행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광역문화재단의 경우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돋보였다. 또한 응모한 민간단체의 경우도 유사사업 실적을 비롯하여 사업수행역량이 우수한 단체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아쉽다.

심사위원들이 심사에서 중요시 한 것 중 하나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과 특히 신청단체의 본 사업에 대한 참여도 즉 열정적인 자세 여부였다. 그 결과 서류심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인터뷰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끝으로 인생나눔교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신청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 인생나눔교실 심의위원 일동